

대선후보 검증 2라운드 돌입

국회 7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

BBK 의혹·대통령 측근비리 등 공방 치열할 듯

국회는 5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고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7일부터 사흘간 실시될 국회 대정부질문은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대선후보 검증에 둘러싼 각 정당간 치열한 공방과 충돌이 예상된다.

◇**통합민주당**=국감의 축소판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최재성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국감 때 드러난 이 후보의 여러 의혹과 정책적 문제점을 국민의 관점에서 알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당은 우선 이명박 후보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공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BBK주가지조작 연루, 삼암DMC 건설특혜, 도곡동 땅 차명소유,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 입대, 강동구 뉴타운 지정 특혜 등 '5대 의혹'이 대상이다.

BBK주가지조작 사건의 경우 김영주 박영선 서해석 송영길 정봉주 의원 등 정부위원들을 중심으로 무려 5명이나 배치했고, 삼암DMC 특혜의혹에는 최재성 의원이 총대를 메기로 했다.

신당은 또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 움직임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금

주중 출마가 현실화되면 2002년 불법대선 자금 문제를 재론하면서 이 전 총재를 '수구·부패 원조 지도자'로 공격, 공세에 나선 방침이다.

◇**한나라당**=‘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국민 앞에 생생하게 드러내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따른 집값 폭등, 경제정책 실패와 과중한 세금으로 인한 서민생활 파탄, 실업과 양극화 심화, 안보 불안 및 가치관 혼란, 정유재 전 청와대 비서관 수뢰 사건을 비롯한 대통령 측근비리 등 다양한 국정 난맥상을 추궁하면서 “정권 교체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명박 대선 후보에 대한 통합민주당의 전방위적 검증 공세에 대한 방어에 조금 더 무게를 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에 나설 의원들만 봐도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두언 의원을 비롯해 박승환, 진수희, 김충환, 박찬숙, 이군현 의원 등 범여권 '저

격수'들에 맞설 이 후보의 '가디언'들을 전진 배치시켰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차원에서 신당 정동영 후보에 대한 검증 고삐도 바짝 죄는 전략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회피 의혹’과 ‘차남 주가지조작 연루, 금전적 문제를 둘러싼 숙부와의 송사 등도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다.

◇**민주노동당**=권영길 후보가 대표공약으로 내건 비정규직 문제를 이슈로 부각시킨다는 복안이다. 권 후보의 행보와 공약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화력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 점도 고려됐다. 대정부질문에는 단병호 의원이 필마단기로 나섰다.

◇**민주당**=대선국면에서 신당을 ‘철 지난 좌파’, 한나라당을 ‘부패세력’으로 공격하는 한편으로 “중도개혁주의만이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참여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각종 의혹 규명도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BBK 주가지조작 의혹에 대한 정부의 대책 등을 추궁하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유류세 10% 인하를 통한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반값 아파트 정책 실패 등을 지적할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현대 '3대 대북사업' 숙원 풀었다

금강산 비로봉 이어 개성·백두산 관광 합의

실사단 이달중 백두산 탐사

현대그룹이 금강산 비로봉 관광에 이어 백두산, 개성 관광까지 이뤄내며 대북 관광 사업의 꿈을 실현했다.

3일 현대와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현대는 회장이 이번 평양 방문에서 최승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백두산 및 개성 관광을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또한 금강산 내금강 관광의 핵심인 비로봉 관광이라는 선물을 얻어냈다.

현정은 회장은 이번 방북에서 대북 관광 3대 사업을 모두 성사시킴에 따라 시아버지인 고 정주영 명예 회장과 남편인 고 정몽헌 회장이 못다 이룬 대북 관광사업을 이뤄낸 셈이다.

현대그룹과 북측의 합의문에 따르면 백두산 관광은 내년 5월부터, 개성관광은 오는 12월 초부터 가능하게 된다.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은 “삼지연 공항의 경우 B737의 이착륙이 가능하고 숙박 시설 등을 고려할 때 한 번에 200명 정도 관광이 가능할 것”이라며 “일단은 백두산 지역에 한해 관광을 실시하며 스키장 등을 이용한 겨울 관광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아산은 중국 쪽이 아닌 북측을 통해 백두산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백두산 지역 관광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묘향산과 평양까지 관광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개성관광은 2003년 개성공단 착공식에 맞춰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관광요금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도로 등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 여행사를 통한 모객만 하면 담당자라도 관광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대아산은 만원대와 선죽교, 고려왕릉, 박연폭포 등 유적지를 다양한 코스로 나눠 당일 관광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관광 대가에 대해서는 현대그룹은 금강산에 준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강산의 경우 1박에 입장료를 북측에 35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개성관광은 조계종이 영통사를 방문하면서 50달러선을 낸 적이 있어 이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백두산 관광 또한 금강산과 개성관광 입장료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편법' 의정비 인상, 방치할건가



정후식

정치부 차장

“요즘 세상에 임금을 75%, 50%씩 올리는 곳이 지방의회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여론조사는 뭐하러 하는 겁니까?”

최근 전남지역 시·군들의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과정을 지켜보던 한 공무원은 이렇게 반문했다. 주민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최악의 흉작 속에 쌀값마저 떨어져 수입에 잠긴 농민들은 물론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크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선 데 이어 삭감 투쟁까지 벌일 태세다.

전남지역의 경우 4일 현재 의정비를 확정된 15개 시·군의 평균 인상률이 32.2%에 달해 전국 기초의회 평균(19.8%)을 훨씬 웃돌고 있다. 나주시 75.2%를 최고로 목포시는 58.9%, 여수시와 장성군은 50% 가까이 인상했다. 지난해 유급제 도입 당시 결정된 전남지역 기초의원들의 의정비 수준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낮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지나친다는 게 중론이다.

의정비 인상에 비난이 쏟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됐기 때문이다. 상당수 시·군에서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공무원 보수인상 만큼이나 ‘동결’ 등의 의견을 먼저 제시했지만 철저히 무시됐다. 올해 처음 도입된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도 ‘요식행위’에 그쳐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나주시와 목포시 등의 여론조사에서도 ‘동결’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결과는 ‘대폭 인상’이었다.

부실한 의정활동도 발미가 되고 있다. 민선 4기 들어 의원 1인당 조례 발의 건수는 대부분 0.5건 미만에 머물고 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집행을 막거나 우선 순위 조정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도 못했다. 반면 의정간 선출을 둘러싼 파벌 운영이나 위유성 해외연수 등 구태는 어김없이 반복됐다.

자치단체별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도 눈치를 사고 있다. 10명의 위원 중 이해 당사자인 의장이 절반을 추천하도록 돼 있어 주민 대표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힘든 탓이다.

더욱이 의정비 결정 마감시한에 압박해 10여일 만에 위원회 구성과 심의, 의견수렴 절차까지 마쳐 버린 것은 의회들끼리 ‘짬짜미’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다. 시·도별로 의정비 격차가 큰 데다 관련 법규에 허점이 많은 상황에서 중앙 정부가 의정비 결정을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화된 의정활동 평가 기준 개발과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반영방법의 구체적 규정, 의정비 결정 주기와 인상을 상한선 설정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현행 심의 제도의 전면적 개선 없이는 매년 이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who@kwangju.co.kr

남북정상선언 관광사업 합의 첫 결실

北-현대가 인연 재확인

현대그룹과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아태위)가 3일 남북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관광과 개성관광에 합의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이행하는 첫 구체적 결실이다.

현대그룹과 북한아태위간 ‘신속한’ 합의는 관광사업의 특성과 현대그룹과 북측간 인연 등으로 인해 남북정상선언 합의 사항 가운데 가장 손쉬운 측면이 있다.

특히 새 관광사업 일정을 백두산은 5월, 개성은 내달 각각 시작기로 할 만큼 서두르는 것은 북측이 지난 한달간 밝혀온 대로 정상선언의 합의사항의 이행 의지를 거듭 과시한 것이기도 하다.

현대그룹과 북측 아태위간 합의서는 2년전 북핵문제의 표류와 현대그룹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대북 관광사업권과 관련해 빚어진 혼선을 정리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4박5일 일정으로 방북해 북측 아태위와 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지난달 4박 5일간의 방북기간 중 백두산 지역의 삼지연을 방문해 배개봉다리에서 안내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측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관계자들을 만나고 백두산 지구까지 둘러보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인 결과 이번 합의가 이뤄졌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일 현 회장과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을 만나 “현대그룹과 현대아산의 선인자

들에 대해 감회 깊이 추억하면서 동포애의 정 넘치는 따뜻한 담화를 했다”고 전함으로써 ‘정주영→정몽헌→현정은’으로 이어지는 현대(家)와의 인연과 경험 파트너로서 신뢰를 김 위원장이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중국측 관광수입 흡수, 남·북 양측에 실익

백두산 관광 직항로 개설되면

내년 5월부터 남북 직항로를 통한 백두산 관광이 시작되면 남과 북에 유·무형의 여러 효과가 기대된다.

북에선 ‘혁명의 생산’이라고 하는 백두산은 남에선 ‘민족의 영산’임에도 중국을 거쳐야만 하는 사정 때문에 그만큼 심리적으로도 다소 밀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백두산 직항로가 열리고 이를 통해 백두산을 오르는 남북 관광객이 많아지면 ‘민족의 영산’으로서 남북 국민들에게 한층 가까워질 전망이다.

직항로를 통한 백두산 관광길은 기존의 중국을 경유한 노선(인천~엔지약 2시간30분, 엔지~백두산 육로이동 약 5시간)에 비해 5분의 1 수준인 1시간~1시간30분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한국교통연구원 측은 추산했다.

삼지연 공항에서 셔틀버스를 타면 40분이면 천지를 볼 수 있으므로 이동 시간만 따질 경우 인천공항에서 천지까지 2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국외직공제회가 2004년 실시한 백두산관광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백두산 관광 선호도는 금강산보다 10.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연구원은 북측을 통한 백두산 관광이 실현되면 연평균 18만4천명, 월평균 1만4천897명의 남북 관광객이 백두산을 방문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전문 인터넷 매체 ‘온바오’는 지난 4월 중국의 백두산보호개발관리위원회 자료를 인용, 중국측이 2005년 백두산 관광사업으로 관광객 50만명에 6천300만위안(75억원 상당), 지난해는 70만명에 1억위안(120억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고 전했다.

남북 직항로를 통한 백두산 관광은 이러한 중국측 백두산 관광수입중 상당 부분을 흡수하고, 직접관광에 따른 추가 수요를 창출해 남·북 양측에 실질적인 경제이익도 줄 것으로 보인다. 백두산 직항 관광은 국제사회에서 백두산의 중국명인 청마이산(長白山)에 밀린 백두산의 이름을 되찾는 기회도 될 수 있다. /연합뉴스

국내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소리없이 다가오는 훈훈함~
원적외선 플레이트 웰빙히터!
전기 히터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로터리히터와 열풍기의 장점을 하나로~
원적외선 프리미엄 웰빙히터!
화력 조절과 원거리 입체 난방까지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모델명	면적
AH-71S(10~17㎡)	
AH-730(20~23㎡)	
AH-705	7~10㎡
AH-72S	17~20㎡
AH-750	33~40㎡
AH-780	40~60㎡
AH-790(73~79㎡)	

고효율의 특허 기술력! 냄새, 소음 저감 장치 채택

난방비 절약! 써보신 분이 권해드립니다.

실내용 사무실, 학교, 병원, 호텔, 은행, 병원, 레스토랑, 유계초, 도서관, 연수원, 마용실, 교회, 주유소 등

실외용 골프장, 놀이동산, 카센터, 공장, 야외행사장, 레저시설, 공사현장, 테미널 등 개방된 장소

무등산업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 840-14(재동육교 옆)
(062)371-7095, 011-601-7701

에어맥스 원적외선 히터 중판

찾아오시는길: 화양역사거리, 신무지구, 쌍현역사거리

담배 신제품 가격공고

림

2007년 11월 5일 출시되는 **림**의 가격을 공고 합니다

제품명	타르	니코틴	규격	포장 구분	소비자 가격
림 0.5mg	0.5mg	0.05mg	100mm 수퍼슬림	20개비/갑 (박스형)	갑 당 2,500원
림 1mg	1mg	0.1mg			

실제로 흡입되는 타르와 니코틴의 양은 흡연자의 흡연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담배사업법 제18조 4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한 제조 담배의 판매가격 공고입니다.